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제62차 이사회 회의록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CHUNGNAM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제62차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22. 05. 26.(목) 10:30

2. 장 소 :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회의실

3. 부의안건

①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② 인사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③ 선수위원회 운영규정(안) ⇒ 원안가결

④ 제4기 이사회 임원 보선(안) ⇒ 원안가결

⑤ 체육진흥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원안가결

- 개회시간 10:30 -

< 유수영 기획총무팀장 >

- 안녕하세요? 이사회 진행을 맡은 기획총무팀장 유수영 입니다.
- 바쁘신 가운데, 충남장애인체육회 제62차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이사회는 1건의 보고사항과 5건의 부의안건에 대해 심의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 지금부터 충남장애인체육회 제62차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서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 유수영 기획총무팀장 >

- 다음은 성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 24명 중 13명의 이사님이 참석하여 규약 제19조 의결정족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 규약 제21조 2항 이사회 소집규정에 의거 충남장애인체육회 회장을 대신하여 이우성 상임부회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 이우성 의장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제62차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이우성 의장 >

- 이사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2년 5개월 만에 첫 대면 이사회를 열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사님들의 관심으로 작년 7월 장애인체육회의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졌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다양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올 한해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올해 3월 선정되어 다가오는 10월에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일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뛰는 대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기업과 연계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지원 사업입니다. 앞으로 많은 선수들이 좋은 기업에 입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사님들과 공유하고 논의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 이사님들께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오늘 이사회 심의 안건은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인사 규정 개정안 등 5건의 심의로 진행하겠습니다.
- 안건심의에 앞서 보고사항 청취가 있겠습니다.
- 유수영 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수영 기획총무팀장 >

- 회의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장애인체육회 사임 이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농협은행 충남영업부 소속의 김경민 이사께서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2022년 3월 10일자에 이사직에서 사임함을 보고 드립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우성 의장 >

- 수고하셨습니다.
- 지금부터 이사회에 상정된 부의 안건 별로, 순서에 따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안번호 제1호,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유수영 팀장은 안전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수영 기획총무팀장 >

- 회의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는 2022년도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기금, 도비보조금,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세출예산 일부 변동사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받고자 함입니다.
-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 64억 1백 1만 3천원보다 3억 7천 2백 41만 2천원이 증액된, 67억 7천3백 42만 5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재원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 먼저,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고용장려금과 밀알복지재단 장애청소년지원금, 충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집행잔액 반환금 총 1천 2백 1십 1만 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 국비보조금 부분에서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6백 30만원 증액, 홍성군 직장운동경기부 1억 1천 7백만원 증액,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어울림마라톤대회 1억원 증액,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홍보비) 2백만원 증액,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1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사업별 증감액을 더해 총 2억 2천 4백 30만원이 증액 되

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공모사업 선정여부, 사업별 교부예산 변경 등에 따라 증감액 됨을 보고 드립니다.

- 도비보조금 부분에서는 장애인 전문체육 지도자 배치 1천 3백 10만 8천원 증액, 보치아 직장운동경기부 6백 6십만원 증액, 골볼 직장운동경기부 6천만원 증액,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6백 4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 예산 대비 총 8천 6백 18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보전수입 부분에서는 21년도 삼성SDI 스포츠클럽 지정기탁 사업비 이월금 2천 5백만원 증액, 21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천 4백 59만 4천원 증액, 21년도 자부담 이월금 21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회의자료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3억 7천 2백 41만 2천원을 행정운영경비 물건비에 4백 33만 5천원 편성,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예 1억 3천 2백 47만 5천원 편성,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예 2억 1천 1백만 8천원 편성, 재무활동에 2천 4백 59만 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9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10페이지 세부 세입예산, 11페이지 세부 세출예산은 자료로 대신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우성 의장 >

- 네, 수고하셨습니다.
-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을 주실 이사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박성순 이사님.

< 박성순 이사 >

- 국비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변동에 의한 추경 부분이니 원안대로 가결되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이우성 의장 >

○ 더 이상 질문이나 의견을 주실 이사님 없으십니까?

< 이사 일동 >

○ 없습니다.

< 이우성 의장 >

○ 더 이상 질문하실 이사님이 안계시므로 심의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1호,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이사 일동 >

○ 네.

< 이우성 의장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호,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이우성 의장 >

○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인사규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이우성 의장 >

○ 유수영 팀장은 안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수영 기획총무팀장 >

○ 회의자료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는 장애인체육회 정원 증원을 통해 증가하는 체육복지 서비스 요구와 신규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대비하고자 함이며, 또한 장애인체육회 조직개편 이후 변동된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인력을 적정하게 재배치하여 운영하고 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체육회 정원 13명에서 15명으로 신규 2명을 증원하고 조직개편 이후 부서별 특성에 맞게 사무분장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우성 의장 >

- 네,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질문이나 의견을 주실 이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박성순 이사님.

< 박성순 이사 >

- 정원이 13명에서 15명으로 2명이 증원 될 예정인가요? 증원이 된 상태인가요?

< 유수영 기획총무팀장 >

- 규정상에는 현재 13명이고 2명을 증원하고자 함이며, 예산은 내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 박성순 이사 >

- 개정이 된 다음에 충원할 수 있는 거죠?

< 유수영 기획총무팀장 >

- 네, 그렇습니다.

< 박성순 이사 >

- 네, 이상입니다.

< 변현수 이사 >

- 정원이 13명입니다.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사업도 많이 증가하고 신규 사업도 생기고 하는데 규정에 정원을 늘리는 것이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예산실하고 타협이 되는 과정이 있고 진흥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어렵게 앞장서서 도움을 주셨고 정원 15명으로 증원 하는 것에 이사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이사 >

- 그렇다면 나중에 또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원 규정을 정해 놓으면 다시 또 증원을 하려고 하면 이사회를 통해 인원 규정을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 변현수 이사 >

- 네, 당연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를 거쳐서 정원 13명에서 15명으로 규정에 증원을 해야 합니다.

< 박재홍 이사 >

- 규정에 인원을 15명으로 정해 놓기 보다는 장애인체육회 추세에 맞게 인원을 2~3배 탄력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이경희 이사 >

- 예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다면 인원을 늘리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예산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사 >

- 그러니까 제 말씀은 15명 인원을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비장애인체육회는 한 30명 정도의 인원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20명이든 여유있게 정하면 나중에 행정성 있게 사무처장님이나 부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인원을 2명을 늘리는데 어려

움이 있었다면 여기 계신 이사님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다면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2명 늘리는 것이 큰 업적인 것처럼 운영 규정 바꾸는 것이 예산이 큰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면 장애인체육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사자라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각하고 이사님들께서 오셨으니까 사무처에서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사무처장님께서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셨을 때는 도움을 요청한 내용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인원을 2명 늘려놓고 또 내년에 사업이 늘어가지고 또 2명이 늘게 되면은 규정을 또 바꿔야 하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원을 못 박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 변현수 이사 >

-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모든 공공기관이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필요하면 이사회를 거쳐서 인원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공공기관이 정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체육회 정원은 26명, 정원은 다 채웠고, 올해 한명정도 늘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13명인데 다 채워져 있고 정원만이라도 좀 늘리자 이것은 예산실하고 충분히 교감이 돼야만 이사회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상정을 해서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걱정해 주시고 필요한 대로 정원 늘려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좋은 말씀 주시고 걱정하는 의미에서 주셨는데 업적보다는 공공기관마다 정해진 정원 규정이 정해져 있다. 이것을 늘린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예산실이나 도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더 늘려가는 방향,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이사 >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에 지금 인원이 충분한 숫자 같지가 않습니다. 전국체육대회나 이사님들께서도 보시지만은 직원들이 잠도 못 자고 한 사람이 3경기 4경기 뛰어다니는 거 보면 안타깝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 드리고 장애인체육회도 이제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노력을 해 주시고 부지사님도 계시지만은 장애인 체육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모든 인원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끔 일반 체육이야 업무 지시만 하고 시군에 시달만하면 되지만 장애인 체육은 그렇지 않다. 이사님들께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 변현수 이사 >

- 고맙습니다. 마라톤 대회도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도 전담 직원이 필요합니다. 항상 경험이 많으시니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사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 이우성 의장 >

- 네, 박재홍 이사님 조언이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의 힘든 고충을 공감하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의 정원이 인원을 정해 놓고 규정상 정원의 현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원을 100명 200명 늘려도 현원은 예산에 따라서 정원을 못 채우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상에 정원의 개념이 있고 현원이 개념이 있습니다. 정원이 15명인데 실제로 예산이 안돼서 현원이 부족한 모든 기관이 그런 기관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원을 늘리고 싶지만 실제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장님 말씀대로 의회나 관련된 예산실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것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2명 늘리는 것을 이사회에서 올리시고 저희도 힘을 합쳐서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이사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 이사 일동 >

○ 없습니다.

< 이우성 의장 >

○ 더 이상 질문하실 이사님이 안계시므로 심의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2호, 인사규정 개정(안)을 원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이사 일동 >

○ 네.

< 이우성 의장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호, 인사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이우성 의장 >

○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선수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이우성 의장 >

○ 유수영 팀장은 안전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수영 기획총무팀장 >

○ 회의자료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선수위원회 설치 의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선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총 14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그중에서 제2조(목적) 선

수위원회는 선수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패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으로써 스포츠정신의 보급,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3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우성 의장 >

○ 네, 선수위원회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질문이나 의견을 주실 이사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이사 >

○ 꼭 만들어야 되는 거죠?

< 유수영 기획총무팀장 >

○ 네, 대한장애인체육회 상위규정에 중앙가맹경기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설치규정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 조재훈 이사 >

○ 왜 지금까지 안 만들었나요?

< 유수영 기획총무팀장 >

○ 계도기간이 올해까지이며,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를 받으면서 우선 규정을 제정해 놓고 위원회 구성은 추후에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이사 >

○ 제안 이유와 같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상위단체에서 구성을 하도록 하였겠습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하도록 건의합니다.

< 이사 일동 >

○ 동의합니다.

< 이우성 의장 >

○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 이사 일동 >

○ 네.

< 이우성 의장 >

○ 더 이상 질문하실 이사님이 안계시므로 심의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3호, 선수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이사 일동 >

○ 네, 없습니다.

< 이우성 의장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3호, 선수위원회 운영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이우성 의장 >

○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4기 이사회 임원 보선(안)을 상정합니다.

○ 유수영 팀장은 안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수영 기획총무팀장 >

○ 회의자료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는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이사를 보선

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후원기관 임원 중 인사발령에 따른 후임자를 이사로 보선하고자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2023년 2월 정기이사회까지입니다.
-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우성 의장 >

- 제4기 이사회 임원 보선(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질문이나 의견을 주실 이사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일동 >

- 없습니다.

< 이우성 의장 >

- 더 이상 질문이나 의견을 주실 이사님 없으십니까?

< 이사 일동 >

- 네.

< 이우성 의장 >

- 더 이상 질문하실 이사님이 안계시므로 심의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4호, 4기 이사회 임원 보선(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이사 일동 >

- 네.

< 이우성 의장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4호, 4기 이사회 임원 보선(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이우성 의장 >

-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체육진흥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이우성 의장 >

- 유수영 팀장은 안전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수영 기획총무팀장 >

- 회의자료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는 그동안 생활체육위원회와 전문체육위원회를 각각 운영하였으나 조직개편 이후 체육진흥부 아래 사업팀을 두어, 두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는 체육진흥위원회 운영규정을 지난 제61차 이사회를 통해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제1기 체육진흥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본 이사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추천 위원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우성 의장 >

-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질문이나 의견을 주실 이사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현수 이사 >

- 한 가지 부연 말씀을 드리자면 총무팀장이 제안내용을 설명 드렸는데 저희가 전문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체육진

흥부로 새로운 부가 생기고 그쪽에서 생활체육위원회, 전문체육위원회를 하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항상, 조금만 다르지, 그래서 통합해서 체육진흥위원회로 구성을 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모든 사업 분야는 체육진흥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근 이사 >

- 규정에 보면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적당한 분으로 추천을하신 걸로 보이는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46페이지를 보시면 도내 위원님들 중에 모실만한 분이 안 계셔서 부산이나 전북에 계시는 분들로 구성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도내 계신 분들로 모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보태봅니다.

< 이우성 의장 >

- 혹시 도내 계신 분으로 하실 수는 없었는지요?

< 변현수 이사 >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최재섭 체육진흥부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섭 체육진흥부장 >

- 네, 저희가 되도록 충남도내에 계신 인프라에 대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모시려고 했는데요, 지금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부산대학교이긴 하지만 사는 곳은 아산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참석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이 안에서 다른 교수님들이 교수님을 추천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에서의 팀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살아 날 것 같아서 말씀드렸구요, 원광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은 저희가 수년 전부터 저희 생활체육위원회와 전문체육위원회 위원으로 계셨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위원도 같이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시도 평가라든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충남장애인체육회와 끈끈한 인연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익적으로 선임을 한 부분이 있어서 위촉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변현수 이사 >

- 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장체에서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우리 이사님들 중에서도 교수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고 대장체와 관계 되신 우리 조재훈 교수님이나 이충영 교수님이나 이사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못 모시고 결국은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들 중에서도 함께 하고 계시구요. 이 분들은 또 어렵게 그 쪽과 관련된 분들 위원회 관련 되신 분들로 모신 걸로 말씀을 드렸구요. 이사님들께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이사 >

- 추천된 강승애 위원장은 남서울대학교에서 장애인 체육을 전공하신 분이셔서 오랫동안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라 위원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구요, 나머지 분들의 몇 명을 보면 대부분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예요. 전공을 하신 분들이라 위원회 역할을 잘 감당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사 >

- 동의합니다.

< 이우성 의장 >

- 다른 의견 주실 분 안 계십니까?

< 이사 일동 >

- 네.

< 박성순 이사 >

- 체육진흥위원회 위원님들을 보면 다 교수님들이세요. 전문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이런 위원회 같은데 혹시 현장에 계신 지도자라든지 관련 되신 분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수님들로 다 구성이 된 건가요?

< 변현수 이사 >

- 그게 참고가 되고요, 현장에 직접 하시는 분들은 교수님들이 평가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당사자들은 또 사실 어렵고요. 이게 모든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이나 또 시군 장애인체육회에서 우리가 사업이나 이런 것을 공모를 했을 때 이런 것을 이제 평가해서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가라든가 공모 사업에 들어왔을 때 공정하게 선정을 해 주신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우성 의장 >

-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이게 교수님들만 채우는 게 사실은 이게 규정상 이런 건가요?

< 변현수 이사 >

- 규정상 그런 건 없습니다.

< 이우성 의장 >

- 이게 사실 현장 지도해야 되는 부분, 물론 심사의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 차원에서는 그런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달라고, 사실은 현장을 아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현장 지도자분들이 명칭이 체육진흥위원회인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질문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규정상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또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도 의문입니다.

< 변현수 이사 >

○ 그렇지 않습니다.

< 김상두 부회장 >

○ 제가 볼 때는 저도 전에 위원장 경험이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자나 전문가는 지역에 연고가 있어서 편견적인 걸 다 알려 주시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지향하는 관계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변현수 이사 >

○ 지금 김상두 부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직전까지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셨고요. 이제 임기가 끝나셨고 했는데요.

< 이우성 의장 >

○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위원회라는 건 모든 관련된 분들이 다 참여해서 체육진흥에 대한 아이디어를 뽑고 정책 대안도 발굴하고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사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는 진흥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저도 중앙정부 행정을 했지만 별거 없거든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은 대표성 있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근 하는 게 사실상 균형성을 지향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서라든지 진흥위원회 인원을 늘리더라도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관련 된 심사 그런 구조로 봤을 때는 다 제출을 하면 되잖아요.

< 김상두 부회장 >

○ 의장님, 저는 그런데 아까 처장님 말씀 들었을 때 전문체육, 생활체육 하셨는데 아까 의장님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여러 가지 사업 목적상 심사가 있습니다. 진흥인데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 변현수 이사 >

- 모든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2명을 늘려서 7명으로 한 거고요,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우성 의장 >

- 이런 공정들을 포함해서 사실 이제 이렇게 지역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관리적인 고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인원을 조금 늘리더라도 다음에는 고려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변현수 이사 >

- 네.

< 이우성 의장 >

- 더 이상 질문이나 의견주실 이사님 없으십니까?

< 이사 일동 >

- 네.

< 이우성 의장 >

- 더 이상 질문하실 이사님이 안계시므로 심의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5호, 체육진흥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이사 일동 >

- 네.

< 이우성 의장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5호, 체육진흥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이우성 의장 >

-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체육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나 발전 방안 등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두 부회장 >

- 우리 충남장애인체육회가 2007년도에 발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가 15년차인데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안정이 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21년도 충남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장은 ‘가’ 등급, 기관은 ‘나’ 등급, 하계체전은 6위, 동계체전에서는 5위 업적을 낳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 처장님이나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노고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 정경환 이사 >

- 제가 아산시장애인체육회 수석 부회장으로 지내면서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일반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직원들의 월급이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올리는데 심혈을 많이 기울였고,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어떤 다른 지역에 월급 지급현황 이라든가 대우 조건들을 따져봐야 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 각 지역마다 차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안시가 가까우니까 사실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대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타 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대우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각자 똑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인데 어떤 지역에서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어떤 지역은 대우도 별로 못 받고 이런 차별적인 걸 많이 봐 가지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거는 그 지역의 단체장이라든가 그 지역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통제 할 수 있고 지시를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도체육회에서 꾸준히 제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지역 간의 차별화 특히 가장 예민한 게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월급 문제라든가 이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게 계속 각 지방 자치단체한테 압력을 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그래야지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체육 지도자가 있어요. 1년씩, 1년씩 계속 연장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도자들에 하는 말이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지도자로 이 계약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필요치 않은 인력이라면 중간에 예를 들면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유지돼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도자는 장애인 취업에서 꼭 필요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식 직원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건 평생 직업인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남도청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도 먼저 좀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꼭 지도자들이 나가가지고 국가기관에 가서 요청하고 해야지 이루어지는 건가 왜 이 사람들을 임시직으로 언제부터인가 이게 잘못 된 겁니다. 그래서 좀 토착화 되는 것 같아 저는 그게 안 좋습니다. 아산시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여섯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섯, 여섯이고 나머지 16, 17명이 지도자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친구들을 보면서 항상 미안한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젊은 시절에 전문 교육 받아 가지고 4년제 대학 나오고 자격증 취득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임시직이죠. 임시직,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데도 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셔서,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뭉쳤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사기진작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것 같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현수 이사 >

- 너무 좋으신 말씀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대두가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되었고요. 정경환 이사님

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셨는데 정규직화를 지금 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도로 말씀 드리면 이제 마침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다음 달까지도 지도자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 도에서는 시군 장애인체육회까지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정규직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은 지금 말씀 주셨듯이 이 지도자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면담을 하고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6월 말까지 정규직화를 할 건데 이게 정규직화가 되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급여라도 좀 올라간다는가 무슨 다른 거라도 있어야 된다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신분 변화만 가져오게 되는 이런 다른 정규직화가 되고 나면 전국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 시도도 이제 거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도가 다음 달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지침이라고 그러죠. 우리 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신문에 이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거를 참고로 시군별로 또 이제 정규직화를 해야 되고 시군 내에서 더 많은 수당을 줄 수도 있어요. 도보다 자체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운영체계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문체부나 대장체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체계라든가 정규직화가 됐으니까 이제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왔다가 막상 이제 정규직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또 100% 다 동의를 또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지도자분들 중에는 그래서 동의서를 또 협의를 해서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잘 말씀 주셨고 저희 도는 다음 달까지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여덟 분이 해당이 돼요. 현재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다음 달까지 정규직화를 해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좋은 말씀 주셨고 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사회가 2019년 12월에 하고 지금 처음 대면 이사회 인대요. 그전에 2020년, 2021년, 몇 차례 전부 그냥 서면으로만 또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코로나가 발목을 잡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적극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칭찬을 주셨는데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아직도 더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는 말씀 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재홍 이사님은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원로시고 오랫동안 관여를 하시고 깊이 알고 계시고 해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 주셨듯이 공공기관들의 정원이 차있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참 조사를 해 봤어요. 저희도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더니 체육회하고 교통연수원하고 장애인체육회 하고 정원이 차있고 나머지 20여개 기관은 정원을 거의 못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조기관은 정원만 되면 그래도 채울 수 있지 않나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

< 노태현 감사 >

- 이어서 궁금하신 사항 같아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문제는, 제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절대적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준 공공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부지사님, 여기서 이제 의장님이시니까요. 지사님이 원래 최종결재가 나야 돼요. 공공기관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통제를 하게 돼 있어서 정원을, 그래서 이번에 2명 늘리는 것도 우리 상임부회장님이 우리 의장님께서 안 계신다고 그러면 아마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원 2명 늘리기 쉽지 않은 구조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2명을 왜냐하면 정원을 확보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실 정원에 맞는 인력을 다시 이제 충원하는 거거든요. 정원에 없는 인력 채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리구요, 또 하나는 생활체육지도자,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장애인이 188명인데 우리 장애인 쪽에 124명이 적은 인원은 아니죠. 그래서 124명인데 도에서 8명이 있고요. 2억 3천 7백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군에서 나머지 116명이 시군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인건비를 들여라 해가지고 현재 기본급이 247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법정 경비를 빼면 한 208만 2천원, 정확하게 그리고 처우개선비는 57만원을 넣

어서 265만 2천 원이에요. 정확하게 평균이 그러면 전국 1,2위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 치우개선비를 늘리는 57만원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지도자 추가 자격 수당을 도입을 했고 또 교통비 라든지 가족수당 그리고 설날 추석이 이제 2번이 있는데 기본급의 50% 씩 2번을 주게끔 했고 그렇게 하니까 월 각종수당이 한 57만원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사님이 전국에서 최고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우리도가 265만 2천원 전국 최고 수준인데 다만 시군에 있는 분은 시군의 예산으로 그걸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도 수준은 최고 수준이지만 시군 것도 다 올려 놓은 거죠. 그래서 아마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전국 1위 수준 정도를 만든거고요. 제가 여기에서는 감사지만 담당과장으로 우리 부지사님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정원 2명 늘린 거 현원도 이렇게 바뀌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체육지도자 저희들이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우성 의장 >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이충영 이사 >

○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이사님도 그렇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잘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페이지나 메일 같은 거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우성 의장 >

○ 좋은 의견, 이사회 안건 내용보다 더 좋은 내용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애인 체육이고 비장애인 체육이고 할 것 없이 우리가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파이팅 하는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한정적인 시기에도 체육은 해쳐 나가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박재홍 이사 >

○ 늘 느끼는 건데 우리 예산에 관련해서 도의회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보면 지금 체육대회의 모든 생활체육 가맹단체나 또 각종 유형별 단체에 지급되는 비용, 지금 15년째 2010년도에 결정한 금액이 지금까지도 그대로다. 참 이런 문제를 우리 좀 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가 상승이나 모든 것이 오르는데 대회 비용으로 아마 종목별 대회 같은 경우 400만원 정도가 지금도 1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 모든 물가 상승에 관해서나 인상이 좀 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체육진흥위원회가 체결 되니까 거기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전달을 해서 대회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금액에 맞춰서 선수를 선발하는 이러한 대회는 좀 더 이제 우리는 발전을 해야 된다. 특히 하계 체육대회와 동계체육대회에 있는데, 충청남도가 동계체육에는 이제 막 눈을 떠서 조금 발전을 하고 있지만은 전부 다 체육회 사무처장님이나 전문체육팀장이나 전부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선수를 훈련을 시켜주고 선수를 추천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 와 있다. 이것이 벌써 내년에는 좋아지겠죠. 내년에는 나아지겠죠. 벌써 10년이 넘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 이사님들이 한 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장애인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한 번 심도 있게 이사님들 다음 번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체육진흥위원회에 전달이 돼서 체육진흥위원회에서 어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음 워크숍 통해서든 좀 더 우리 장애인 체육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현 지사님이 모 실업팀도 만들고 해서 많이 좋아졌다. 이거는 피부적으로는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체육대회나 각종 대회를 가보면 똑같다. 여러분께서 특히 이 동계체육 같은 경우는 관심이 좀 떨어진 종목이라 그렇고 예산이 많이 쓰여 지는 종목 이라고 그럴 수는 있다. 그러나 예산이 10년 동안 동결하는 거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변현수 이사 >

-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참 10년 전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글씨 조금 늘어나겠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걸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상금이나 훈련비나 대회 참가비나 상당히 좀 이렇게 늘어났다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제가 동계체전에 4종목, 5종목을 갔는데 가서 듣는 얘기는 똑같은 말씀이 그냥 귀가 따갑도록 제가 들어요. 지원이 부족하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장비가 하나에 몇 천만 원씩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동계라는 종목이 저희 도에는 한명도 없어요. 하계 선수들이 다 동계 종목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링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종합 순위에도 들고 해서 이거 종합 5위를 했는데 경기, 서울, 개최지 빼고는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최고 성적이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말씀이고 돈에 대비해서 선수를 추천시킨다는 말씀은 저는 체육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가맹경기단체에서 출전 선수를 요청하면 100% 다 수용을 해야지 이거를 몇 명, 몇 명 조절한다는 거는 안 맞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팀장님도 계시지만 그런데 좀 뭐라 그럴까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록은 돼야지만 전국 대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숫자만 늘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종목마다 분명히 요구하는 숫자나 저희들이 조정하는 숫자는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최대한 지금 말씀 주신 거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예산이 지금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지사님도 가끔 저한테 말씀을 주시지만 장애인체육회 예산이라든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까 인원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항상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의회분들도 장애인체육회 예산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냥 이렇게 안되 가 아니라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해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사님들도 좀 힘을 주시면 계속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경희 이사 >

-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저희 여기 장애인체육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보치아 종목이 많지 않아서 저희는 좀 불리하다 했는데 종목을 조금 늘려 주시더라고요, 남성, 혼성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생활,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는 것 때문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보치아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번에 전국체전에서도 저희가 금메달을 따고 그래서 학생 체육을 하려면 장애인체육이지만 학생들부터 체육회가 들어와서 올라가야지만 뭔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발굴이 안 되면 전혀 선수 생활을 못하세요. 근데 이제 발굴이 되는 시점을 전문체육강사를 파견하는 식으로 보내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일단 저희 보치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치아를 담당하고 있어서 보치아 같은 경우는 보령체육관을 이용하는 게 되게 좋아요. 보령체육관이 넓고 앞에 공간도 많고 근데 이제 대관료가 너무 비싸다보니까 저희가 그거 보면서 그런 부분은 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건의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 보치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중증장애잖아요. 그래서 그 버스 한 대만 가지고는 뭔가 움직이기가 되게 어려운 게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잠깐씩 움직이는 게 보령체육관에서도 그렇고 진짜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일반차량 가지고는 사실 안되거든요. 리프트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니버스 정도 15인승이나 이런 걸 한 번 구입하면 어떨까, 다 이제 이게 예산 문제라 쉽게 저희가 지금 연맹에서도 계속 돈을 모으고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한 번 구입해보려고 하고 있고 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이우성 의장 >

- 오늘 오찬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찬장에서 말씀하시고 회의를 마무리할까요.

< 이사 일동 >

○ 네.

< 이우성 의장 >

○ 더 이상 말씀하실 이사님이 안 계시면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2차 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폐회시간 11:30 -